

도미니카 공화국, 페르난데스 대통령 당선

□ 도미니카 자유당(PLD)의 페르난데스 前대통령 당선

- 5월 16일, 도미니카 공화국 대선에서 야당인 도미니카 자유당(PLD)의 前 대통령 페르난데스 후보가 56%를 득표하여 대통령 당선이 확정됨.
- o 집권 도미니카 혁명당(PRD)의 메히아 現 대통령은 34%, 기독교회 개혁당(PRSC)의 에스트레야 후보는 8.7% 득표에 그침.
- 페르난데스 前 대통령의 당선 배경은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인 것으로 분석됨. 미국에서 공부한 변호사이자 전문기술관료 출신인 페르난데스 前 대통령은 1996-2000년 집권시기에 매년 성장률이 8%대 달하는 등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거둔 바 있음.
-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세계경제 침체, 유가상승 등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와 전력난 지속, 국내 3위의 은행인 Baninter의 도산,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지난해부터 환율불안, 물가급등,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음.
- 미국에서 공부한 자유주의 성향의 페르난데스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국가 공무원 정원 축소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과 76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채무의 재조정 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제시하였고, 당선이 확정된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최대 국정현안은 물가와 실업이라고 강조함.

□ 향후 경제 전망

-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페르난데스의 대통령 당선으로 IMF와의 원만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,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정책과 개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나,
- 여당이 의회의 소수당이며, 공무원 임금 삭감 등에 대한 노조의 반발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.
- 8월 16일 취임 예정인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외채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채권자들과 10억 달러 상당의 국제채(sovereign bond)에 대한 채무재조정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.
 - o 공적채권자인 파리클럽과는 이미 4월에 채무재조정 협상을 타결하여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파리클럽 외채 원리금 1억 9,300만 달러를 5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재조정할 바 있음.
- 도미니카 공화국은 IMF의 대기성 차관(2년 만기 6억 5,700만 달러)을 도입해 놓고 있으며, 이중 1억 9,700만 달러가 이미 집행되었으나, 폐소화 평가절하로 인한 자본도피(capital flight) 등으로 인해 외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.
- 국내경제도 지난해 12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(-0.4%)을 기록한 데 이어, 금년에도 환율인상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내수침체 지속, 전력난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(-1.0%)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책임연구원 김영석(☎3779-6653)
 E-mail : claudio@koreaexim.go.kr